

수 신 편집국장 · 보도국장
참 조 미디어 담당 기자
발 신 전국언론노동조합

언론노조, 구글 코리아에 ‘가세연’의 유튜브 커뮤니티 가이드 위반 조치 요청 공문 전달

1. 국민의 알권리와 언론 자유를 위해 노력하시는 기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 전국언론노동조합(이하 언론노조)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에서 2021년 12월 28일 게시한 [충격단독] 이준석 결사옹위 민주당 클래스’ 영상이 유튜브 커뮤니티 가이드 “저속한 언어 정책”, “괴롭힘 및 사이버 폭력에 대한 정책” 및 “잘못된 정보” 조항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3. 이에 언론노조는 가세연 채널의 유튜브 커뮤니티 가이드 위반 사실을 별첨과 같이 구글 코리아에 공문으로 전달하고,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가세연 채널의 모든 영상에 대한 유튜브 커뮤니티 가이드 위반 여부 조사 및 규제 절차 검토를 함께 요청했습니다. 기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보도 부탁드립니다. <끝>

별첨. [공문] ‘가로세로연구소’ 채널의 유튜브 커뮤니티 가이드 위반에 대한 조치 요청의 건



우 04520 서울 중구 세종대로 124 한국언론진흥재단 1802호 Telephone 02-739-7285 Facsimile: 02-735-9400 http://media.nodong.org

(담 당 : 언론노조 성평등위원회)

2022. 1. 20.

문서번호 성평등위원회 2022 - 001
수신 구글 코리아 대표
참조 구글 코리아 대외홍보정책담당
발신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
제목 ‘가로세로연구소’ 채널의 유튜브 커뮤니티 가이드 위반에 대한 조치 요청의 건

1. 구글 코리아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전국언론노동조합(이하 언론노조)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에서 2021년 12월 28일 게시한 [충격단독] 이준석 결사옹위 민주당 클라스' 영상이 유튜브 커뮤니티 가이드 “저속한 언어 정책”, “괴롭힘 및 사이버 폭력에 대한 정책” 및 “잘못된 정보” 조항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첨부 1 참고).

3. 조회수가 약 75만 회에 달하는 위 영상은 저속한 표현 인격권 침해, 선거에 대한 오정보 제공으로 해당 채널 구독자에 대한 선입견을 조장하여 일반 이용자로 하여금 유튜브의 브랜드 이미지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4. 그럼에도 다수의 영상을 통해 모든 크리에이터가 준수해야 하는 커뮤니티 가이드를 위반한 가세연 채널에 대해 유튜브는 지금까지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가세연은 해당 영상을 통해 지속적인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구글 코리아와 유튜브의 책임 있는 조치를 요청드립니다.

5. 아울러, 유튜브 코리아는 언론노조 성평등위원회가 지난 12월 30일 발표한 성명(첨부2 참고)을 통해 촉구한 바와 같이 가세연 채널의 모든 영상에 대해 유튜브 커뮤니티 가이드에 명시된 “저속한 언어 정책”, “괴롭힘 및 사이버 폭력에 대한 정책”, “잘못된 정보”의 위반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고, 규제 절차를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끝>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
NATIONAL UNION OF MEDIAWORKERS



[첨부 1. 유튜브 커뮤니티 가이드 위반 내용]

[저속한 언어]

해당 영상 속 출연자는 “x발”, “x을 친다”, “x구리를 뜯” 등 비속어를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현재 이 영상은 어떠한 연령 제한 없이 누구든 검색을 통해 시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 영상에서 출연자는 비속어가 노출될 경우 연령 제한을 받을 수 있다고 직접 언급하는 등 유튜브 커뮤니티 가이드에서 명시하고 있는 정책을 숙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비속어를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점으로 보아 해당 채널은 어린 시청자들의 비속어 노출에 대한 문제의식이 부재하며,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유튜브 영상에서의 비속어 사용이 미치는 악영향보다 채널의 수익을 더 중요시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잘못된 정보, 괴롭힘 및 사이버 폭력]

가세연은 이준석 국민의 힘 대표의 과거 성상납 의혹을 주장하는 과정에서 성상납 의혹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는 방송사 기자의 실명과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영상에서 언급한 이준석 대표와 해당 기자와의 관계는 명백한 허위사실이며, 이는 국민의 알 권리나 공적인 이익을 위한 정보 공개가 아닌 개인의 인격권을 침해한 사이버 폭력입니다. 오직 방송인이라는 이유로 본인들이 영상에서 밝히고자 하는 내용과는 전혀 무관한 인물의 신상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인해, 현재 허위 정보가 포함되어있는 해당 영상으로부터 파생된 게시물도 다수 게시된 상태입니다.

[첨부 2. 전국언론노동조합 성평등위원회 성명]

김세의·강용석의 여성 혐오와 비하를 더는 지켜볼 수 없다.

강용석·김세의가 진행하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의 반인권적 행태가 극한으로 치닫고 있다. 지난 28일 업로드 된 <이준석 결사옹위 민주당 클래스>에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과거 의혹을 주장하며 MBC기자의 실명을 언급하며 사진까지 공개했다.

지난 조동연 교수 자녀의 실명과 사진 공개에 쏟아진 비판에도 어떤 사과나 자성도 없었던 이들이 또 다시 자신의 주장과 무관한 사람의 인격권까지 서슴없이 침해한 것이다.

공직자나 정치인에 대한 비판과 평가는 필요하다. 그러나 100만 명이 넘는 이용자 앞에서 손으로 흔들며 ‘증거’라고 제시하는 검찰 수사 기록은 말 그대로 용의자나 피고의 증언을 적은 문자이지 그 자체가 사실은 아니다. ‘전직 기자’라는 김세의는 과거 MBC 보도국 기자였을 때, 수사기록에 대한 사실 확인과 교차 검증의 기본도 배우지 못한 모양이다.

강용석·김세의는 이번 MBC기자의 실명 공개 뿐 아니라 해당 채널 다른 콘텐츠에서도 여성 혐오와 성차별의 언어를 가감 없이 토해냈다. 일반인들이 사적인 자리에서도 조심하는 표현도 이들은 저열한 몸짓과 천박한 어투로 ‘의혹’과 무관한 이들의 인격권까지 조롱과 비하의 소재로 취급해 왔다.

전국언론노동조합(언론노조) 성평등위원회는 강용석·김세의에 대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요구한다.

첫째, 유튜브 코리아는 MBC 기자의 실명과 사진이 공개된 콘텐츠 뿐 아니라 가세연 채널의 모든 콘텐츠에 대해 유튜브 커뮤니티 가이드에 명시된 “저속한 언어 정책”, “괴롭힘 및 사이버 폭력에 대한 정책”, “잘못된 선거 정보 관련 정책”의 위반 여부를 철저히 심사하고 위반 경고에서 채널 또는 계정 폐쇄까지 절차를 검토하라.

둘째, 시민노동여성 사회단체에도 당부드린다. 강용석·김세의의 발언과 행동은 MBC 기자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여성과 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비하 발언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함께 물어주시길 바란다.

셋째, 유튜브 코리아는 가세연과 같이 혐오와 비하로 수익을 창출하는 콘텐츠와 채널에 대한 자율규제의 강제력을 확보하고 사회적 동의를 얻기 위해 현재 언론노조 등 언론현업단체와 언론사업자들이 구성하고 있는 “통합형 자율규제기구” 설립에 동참하라.

아울러, 우리는 언론노조 MBC본부 성평등위원회가 가세연을 상대로 한 법적 조치 등 투쟁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며, 끝까지 연대해서 싸울 것임을 천명한다.

2021년 12월 30일

전국언론노동조합 성평등위원회